

음이온 컬러 TV 개발 (주)금성사

금성사(대표 : 이현조)가 원적외선은 물론 인체에 유익한 음이온까지 발생시켜 주는 음이온 컬러TV 「아트비전 그린」을 세계 최초로 개발,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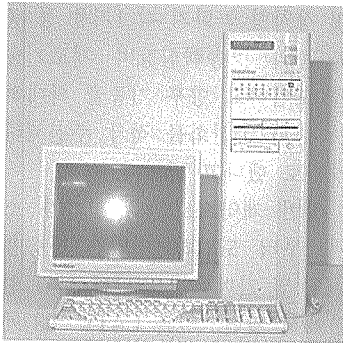
동사가 23억원을 투입,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1년 6개월만에 상품화한 이 제품(25, 29인치 두개 모델)은 TV본체내에 음이온발생기를 부착, TV를 시청하는 동안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이를 중저음 스피커(슈퍼우퍼)의 강한 음압을 이용해 외부로 방출함으로써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TV는 또 내부방열판에 특수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입혀 TV를 켜면 원적외선이 외부로 방출되도록 설계했으며 CATV(종합유선방송)에 대비, 4개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PIP(화면내화면)기능도 부가했다.

한편 일반공기중 마이너스성격을 띤 산소이온인 음이온(O₂⁻)은 흡입시 혈액정화, 세포신진대사 촉진 및 저항력증가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 버클리대를 비롯

한 세계 유명대학과 연구소의 임상보고 등을 통해 이미 효능이 입증됐다고 금성측은 덧붙였다.

보급형 소용량 복합 전화정보처리장치 개발 금성정보통신(주)



금성정보통신(대표 : 정장호)은 음성자동응답서비스와 음성사서함서비스는 물론 전화의 자동교환 서비스를 한 시스템에서 관리, 제공하는 보급형 소용량 복합 전화정보처리장치(모델명 : VIPS-OS)를 개발,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최대 16회선의 공중전화망(PSIN) 또는 사설교환기에 연결되어 전화정보 이용자에게 다양한 음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대용량 VIPS-HL(256회선), 중용량 VIPS-M(64회선)을 개발하여 한국통신 등에 공급하고 있는 동사는 이번 소용량 장치의 개발로 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수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전화망과 컴퓨터망을 연동하여 호스트 컴퓨터의 각종 정보를 음성신호의 형태로 변환, 전화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최대 2,000명까지 사서함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음성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 장치는 외부전화를 자동으로 응답, 안내하여 내선 가입자에게 직접 연결시켜 주는 전화자동교환 서비스까지도 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므로 경비절감은 물론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센서사업 본격화 대성전기(주)

대성전기(대표 박재범)가 센서사업을 본격화한다.

동사는 총 3억원을 투입, 금속박막형 압력센서의 생산설비를 다음달까지 도입, 이미 개발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금속박막형 압력센서를 오는 3월부터 생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영업팀과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센서 영업 전담팀을 발족, 시장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센서영업팀은 자동화설비업체 등 압력센서 수요업체들로부터 납품승인을 받는 작업과 영업망 구축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리트선 생산 대폭 확대 대아리트선(주)



대아리드선(대표 황성박)이 경기도 안성에 공장을 신축, 생산능력을 크게 늘린다.

동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경기호전으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안성에 제4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완공예정인 안성공장에서는 세라믹컨덴서용을 위주로 월 200톤의 각종 리드선이 생산되며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리드선 생산 능력은 월 700톤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일 50N4와 CATV용 방송기기 기술제휴 계약체결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일본 소니사와 1년여의 협상 끝에 CATV용 방송기기 기술제휴에 관

한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동사는 대우센터 5층 회의실에서 정주호 전무와 소니의 B&I (Business & Industry)기기 사업 본부 오키다(沖田伸, Shin Okita) 본부장간에 체결된 계약을 통해 1차로 베타캠(Betacam)방식의 녹화기 1종 및 재생기 2종, 분리형 캠코더를 구성할 수 있는 카메라 및 장착형 녹화기 각 1기종 등 총 5기종의 방송핵심장비 제조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기종을 확대하는 한편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우전자가 소니로부터 도입하게 되는 방송용 VCR 및 카메라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일본 CATV '93」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최첨단기기로 알려졌는데, 고정도3CCD, 고정밀 메카니즘, 콤포넌트 신호처리 등 첨단기술이 집적된 제품으로 가정용 VCR 및 캠코더 등 관련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타캠 방식으로 화질 및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디지털 VCR 및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 등 미래첨단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는 올해 3월말부터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 및 프로그램 공급자 등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미공장에 이들 제품 전용생산라인 설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품의 설계 및 제조, 생산기술을 국산화한다는 방침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본격 시작되는 '95년 30%, '96년 50% 등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KETI)와 공동으로 CATV에 필수적인 가입자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화면 분할기를 자체개발하는 등 방송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프레스티지' 93> 수상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 스페인 판매법인이 최근 스페인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바로셀로나 프레스티지(Prestigi)'93>을 수상하였다.

프레스티지'93은 '88년부터 스페인 정부산하 소비자기관인 '포멘토 데 트라바호(Fomento De Trabarjo)에서 주관하여 호텔, 보험, 가구, 서비스, 교육, 스포츠, 가





전 등 사회 각 분야 22개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문화, 경제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발전 공로가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 매년 시상하여 왔는데 그중 TV, VTR 등의 가전부문에서 유일하게 대우전자 스페인 판매법인(DESPA : Daewoo Electronics Espana, S.A. 법인대표 : 강대현)이 수상하였다.

동사의 스페인 판매법인은 바로셀로나에 '92년 4월 설립되어 지난해에는 3,000만불을 판매하는 등 그동안 활발한 판매 활동을 벌여 왔고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물류센터도 개설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 공로와 자사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이 인정되어 스페인 정부로부터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헝가리 판매법인 설립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최근 폴란드, 체코에 이어 헝가리에도 판매법인을 설립, 동구 선진지역인 이들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브랜드세일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사가 자본금 100만불을 단독으로 투자,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헝가리 판매법인(Daewoo Electronics (Hungary) KFT.)은 칼라 TV, VCR, 전자렌지, 세탁기, 오디오,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을 대우브랜드로 헝가리 국내에 판매하게 된다.

이 판매법인은 본격 운영되는



내년 600만불을 시작으로 '95년에 1,000만불 이상을 판매하는 등 매년 판매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전자는 부다페스트 시내에 상설전시장 등 직영매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별 유통망과 A/S망을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칼라TV 150 4mm 인증 획득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최근 구미 TV공장이 ISO 9001 인증을 획득, 칼라TV의 기술력과 품질보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됐다.

구미공장 본관에서 TV사업부장 유시룡 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인증서 전달식에서 칼라TV 공장에 대해 영국의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심사기관인 디엔비큐에이(DNVQA)로부터 ISO 9001 인증서를 받았다.

구미 TV공장은 연간 400여만대의 칼라TV를 생산,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엔 ISO 9000 시리즈 중 가장 범위가 넓은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설계, 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가 포괄하는 전반적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칼라TV에 품질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일본에 486 PC 수출 (주)삼보컴퓨터

(주)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가 일본 엡스다이렉트사에 오는 96년까지 486PC 16만대를 수출한다.

동사가 일본 엡스에 수출하기로 한 PC는 486SX-25MHz에서부터 486DX2-66MHz까지의 486 PC로서 올해 3만대, '95년 5만대, '96년 8만대 등 총 16만대다.

엡스는 이번 수출계약에 따라 「엔데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컴퓨터를 공급받아 일본지역내에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또 일본사프와 486SX-25MHz 2개모델과 486DX2-66모델 등 3개모델에 DOS 6.2/V 및 윈도우 3.1을 탑재해 수출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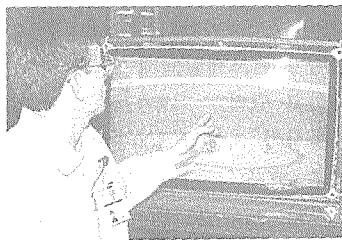
수퍼플랫 브라운관 개발 삼성전관(주)

삼성전관(대표 윤종룡)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32인치 평면 와이드 TV용 「수퍼플랫 브라운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 제품의 개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와이드TV용 브라운관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수퍼플랫 브라운관은 브라운관의 평면도를 나타내는 곡률이 대체로 1.7R 이상인 제품을 말하는데 삼성전관의 신제품은 2R정도의 곡률로 일본 업체의 기존제품보다 화면의 평면화 비율이 높고 새로운 화면재생기술을 도입, 보다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영화스크린과 같은 16대 9로 일반 TV브라운관보다 넓은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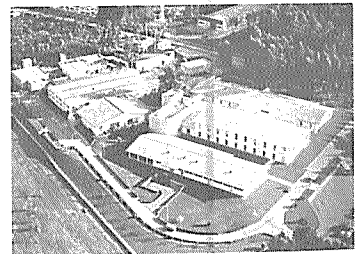
포르투갈에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미국의 TI(Texas instruments)사와 포르투갈의 포르토(Porto)시에 대단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데 최종 합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양사가 합작 계약을 체결한 반도체 공장은 포르투갈 북

부의 포르토시에 위치한 대지 3만 1,000평, 건평 4,400평 규모의 건물로, 1973년 설립된 종업원 800명의 이 공장에서는 그간 TI사가 바이폴라 제품 등 일부 저부가가치 비메모리 제품을 생산해왔다.

동사와 TI사가 공동 투자하게 될 이번 합작공장은 총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품을 조립, 검사할 수 있는 각종 최신 설비를 도입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을 통해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4M, 16M DRAM과 TI사의 고급 로직(Logic)제품을 생산해 유럽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선 냉장고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지구오존층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는 비프레온 대체냉매 냉장고를 개발했다.

삼성종합기술원 등 그룹관계사와 공동으로 300억원을 투입, 3년 6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사이클로-펜탄」 냉장고(SR-3033)는 오존층파괴의 주범인 염화불화탄소(CFC, 일명 프레온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비프레



온 대체냉매제품이다.

이 냉장고의 냉매로는 수소염화 불화탄소인 HCFC-134a가 사용되고 있으며 단열재의 발포재료는 삼성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 먼저 개발한 대체물질인 사이클로-펜탄이 적용됐다.

동사는 이 냉장고에 대체냉매 및 신발포제 채용과 함께 절연성과 유효성이 향상된 컴프레서를 비롯 열교환기 감압기 및 흡습기 등 핵심부품을 자체개발, 채용함으로써 냉장고의 성능 또한 크게 향상시켰다.

CD 그래픽 처리용 주문형 반도체 생산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CDP)와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LDP)등 디지털 영상기기의 그래픽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ASIC(주문형반도체)를 개발, 생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콤팩트디스크내에 기록돼 있는 그래픽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IC(집적회로), 회

로의 동작과 관련한 발진소자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로를 칩내부에 집적시켰다.

또 마이컴과의 상호접속을 통해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최대 16개국의 언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화면에 표시되는 위치가 표시장치(TV)의 특성에 의해 변했을 경우 이를 보정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프린터 전담법인 설립
(주)신도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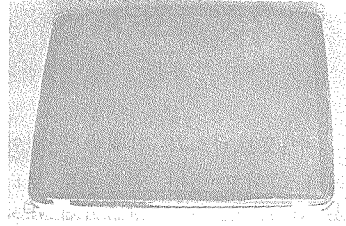
신도리코(대표 우석형)가 프린터사업을 전담할 별도법인을 설립한다.

지난 92년 6월부터 정보기기사업부를 신설하고 미국의 렉스마크사와 제휴해 레이저빔 프린터 등을 판매해온 동사는 최근 프린터 시장이 성숙기를 맞음에 따라 오는 7월께 정보기기사업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현재 정보기기사업부는 30여명의 연구 및 영업인력을 갖추고 있는데 올해 독립이후 내년중 이를 50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앞으로 신모델을 대폭 보강, 프린터 사업을 본격화 할 이 회사는 현재 시판중인 「LP 1220S」등 레이저프린터 3개 기종과 「EXEC-JIT 4072」등 잉크젯프린터 2기종에 이어 새로운 레이저 프린터 「LP 4039」시리즈 3개 기종을 추가로 내놓았다.

곡률 2.48급 CRT 첫 개발
오리온전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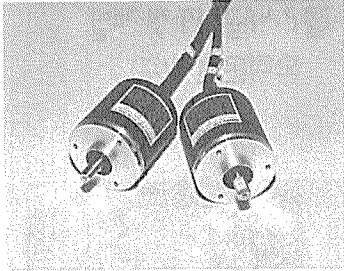
오리온전기(대표 엄길용)는 지난해 총 6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일본 도시바사와 기술협의를 통해 곡률 2R이상급의 컬러브라운관 개발에 착수한 이래 최근 브라운관 외면의 평면정도를 나타내는 곡률이 2.4R인 29인치 모델명 「뉴플랫 브라운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HDTV용 브라운관의 곡률에 근접한 2R이상대의 민수용 컬러브라운관이 국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사가 개발한 「뉴플랫 브라운관」은 편향각 108도, 스크린피치 0.8~0.96mm이며 인바마스크를 채용한 고품위제품이다.

동사는 우선 내달부터 월 2,000대 규모로 소량 생산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뉴플랫 브라운관」의 본격 양산에 착수, 연 45만대 규모를 출시할 계획이다.

ABSOLUTE 로터리 인코더 시판
(주)오토닉스



(주)오토닉스가 신제품 시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솔루트 로타리 엔코더는 축의 회전각에 비례한 절대값을 2진 혹은 2진화 10진 코드 등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제품으로서, 'BCD', 'GRAY', 'INDEX' 코드의 신호로 출력이 가능하며, 축의 회전각에 비례한 출력 DATA는 절대위치(각도)에 대한 값으로 인크리멘탈형 엔코더와는 달리 별도의 원점보상이 필요없고, 전기적인 노이즈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전원차단(Power OFF)시에도 출력 Data는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제품의 응용면에서는 산업용 공작기계에 적용하여 CNC선반의 공구 교체용, 회전체의 각도 및 위치제어용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 직판 전환체계 구축 (주)SKC

(주)SKC(대표 안시환)가 소프트웨어 직판체제를 구축한다.

이 회사는 필름 및 미디어사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부문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가 급신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 자체 소프트웨어 생산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계기로 판매방식도 직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을 별도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조만간 부산에 직판시 범점을 개설 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체 직판점을 설치, 직영 혹은 체인화를 통해 소비자 직접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브랜드 생산비중을 크게 확대, 소프트웨어제작·선정에서부터 판촉과 판매를 회사가 일괄 관리하는 브랜드시장으로 육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바이온TV개발 아남전자(주)

아남전자(대표 김주연)가 건강 TV인 「바이온 TV」를 개발했다.

동사가 지난 93년 1월부터 2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 개발한 바이온 TV는 인체에 유익한 음이온을 다량 공급해 실내의 공기를 맑게 하는 음이온기능과 바이오세라믹 물질을 이용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바이오기능을 동시에 채용한 건강 TV이다.

특히 컬러TV 본체내에 음이온 발생기를 탑재, TV전원을 켜는 순간 TV의 FBT(편향코일)의 수평 펄스에서 발생하는 169~340KV의 직류 마이너스 고전압으로 공기의

음이온화를 인위적으로 유도, 공기중 양이온이 음이온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압차를 이용해 음이온을 외부로 확산시켜 실내공기를 맑게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TV캐비닛 후면에는 제일모직(주)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바이오 세라믹물질을 혼합성형해 TV 작동중에 발생하는 열의 방출현상에 의해 원적외선이 방출되도록 했다.

PTC 서미스터 증산 자화전자(주)

자화전자(대표 김상면)가 PTC(정온도계수)서미스터 설비를 증설하고 생산능력을 크게 늘린다.

동사는 올해 PTC 서미스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매출액 대비 PTC 서미스터 매출비중을 작년의 20%에서 올해 3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동사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원 가량을 투입, PTC 소성로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월 400만개이던 생산능력을 6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립 및 검사장비 등 자동화설비의 증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동사는 이와관련, 최근 청주공단내 한 공장을 인수했는데 다음달중 증평공장의 일부 자석생산라인과 도금시설 등을 이 공장으로 이전한 뒤 확보된 공간에 증설된 PTC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전력증폭기 개발
홍창물산(주)**

홍창물산(대표 손정수)이 이동전화시설의 핵심장비인 이동전화기 지국 송신용 전력증폭기를 국산화했다.

이 증폭기는 기지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증폭해 이용자에게까지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전화시설의 핵심장비이다.

동사가 개발한 전력증폭기는 800메가Hz대 주위의 전파환경에 따라 8단계로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테프론 PCB에 전류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회로를 채택, 기존의 외국제품보다 전력소모를 크게 낮췄다. 또 운용중에도 교환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어로 출력이 자동조절돼 과전류 발생등에 의한 회로보호 및 과열방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에 반도체 조립공장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과 우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모두 220억원을 투자, 청주에 연산 13억 4,000여개 규모의 반도체 조립공장을 건설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주 제4공단(청주시 봉명동 37의 21)에 위치하게 되는 새로운 반도체 조립공장은 기존 이천공장 조립라인의 마지막 공정을 담당하게 된다.

회사측은 현재 이천 본사내에 반도체 제조라인과 연구소를 증축중에 있으며 반도체 조립라인의 공간부족과 생산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으로 경기도와 가까운 공단에 부지를 물색하던중 4공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청주 조립공장은 모두 1만 2,000여평 규모의 부지에 2개 공장건물과 기숙사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중 1개동은 이미 신축이 끝나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약 5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국제표준의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활용한
무역업무 자동화 본격 개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최근 전자문서 교환관련 국제표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전자문서 실행지침서(MIG : Message Implementation Guideline)에 바탕을 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동사의 수출관련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

이번에 동사는 EDI방식의 무역업무 자동화 도입으로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입 승인서 등 수출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은행을 직접 출입하면서 수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 전자 문서 교환방식에 의해 관련서류들을 수출입 업무 담당자 컴퓨터 단말기에서 직접 출력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동사는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도입을 위해 '93년 7월 한국 무역정보통신에 VAN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11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KT-NET와 동사의 VAN 전용시스템과의 개통을 보았으며, '94년 1월 VAN 시스템과 사내 온라인용 호스트 컴퓨터와의 접속을 마치고 이번에 수출/입 업무 무역자동화를 본격 개시하게 되었다.